

Issue No.
2014-9
September
2014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유엔 주요 소식

유엔 인권이사회 폐막 ... 북 인권 UPR 보고서 정식 채택



제27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27일 3주간의 회의를 마치고 폐막했다. 동 회기동안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철폐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UPR 보고서를 채택했다. 본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268개 권고를 담고 있다.

UPR, 즉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란 유엔 193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14개국을 선정해 세 번에 걸쳐 국가별 인권 상황을 점검한다. 북한은 2009년 1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심사이다.

보고서 채택에 앞서 진행된 북한과 16개 회원국, 인권 단체 등의 입장 표명에서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UPR이 북한과의 인권대화의 기회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며 북한 당국에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촉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286개 권고 가운데 어린이와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한 113개 권고안만 수용했으며, 연좌제 폐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권고 이행, 유엔 북한인권특별 보고관의 북한 방문 허용, 정치범 수용소 폐쇄,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 등 93개 권고안을 거부했다.

북한의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유엔 인권 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국가인권기구 소식

위원회, 제7차 북경인권포럼 참가

제7차 북경인권포럼이 “중국의 꿈, 중국 인권의 새로운 발전”을 주제로 9월 17일-18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어 각 국 인권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중국학자 및 고위 관료가 참석하였다.

북경인권포럼은 2008년부터 매년 인권과 관련된 주제로 열리는 포럼으로 중국인권연구회가 주최하고 중국인권발전기금이 후원한다. 인권관련 국제의견 교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본 포럼은 2013년까지 6차례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인권, 안보, 발전 등을 다루며 인권과 발전의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번 포럼은 1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7, 18일 양일간 진행되었으며 중국의 꿈이 갖는 인권적 측면의 의미, 국가 관리의 혁신과 인권보장, 인권분야에서의 다문화 교류, 반테러와 인권보장 등의 주제가 논의 되었다.

위원회에서는 유명하 상임위원이 참석하여 인권분야에서의 다문화교류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15분가량 이어진 발표를 통해 유명하 상임위원은 대한민국의 다문화 현황, 다문화 사회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국가인권기구 소식

김영혜 상임위원,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고문방지 대사 선출

우리 위원회 김영혜 상임위원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고문 및 부당한 처우 방지 업무를 담당할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고문방지대사’로 선출되었다.

지난 26일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과 고문방지협회(APT)는 우리 위원회의 김영혜 상임위원이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고문방지대사로 선출되었다고 알려졌다.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고문방지대사는 자국 내 고문 및 부당한 처우 방지를 위해 개선해야할 문제를 파악하며 이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이행하여 그 성과와 한계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

김영혜 상임위원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고문방지대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문방지를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김영혜 상임위원은 고문방지대사로서 구금시설이나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정부에 대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촉구, APF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고문이나 부당한 처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인권위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특집 (인권조약)

2013년 인권 상황 실태 조사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국제인권시스템 현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국제인권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국제인권동향 기획특집으로 매달 국제인권 메커니즘에 대해 소개한다.

[강제실종협약]

강제실종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은 1992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강제실종에 대한 선언의 내용을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만든 것이다.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2001년에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협약초안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여, 2006년 인권위원회를 대신하게 된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실무그룹의 초안을 채택하여 UN 총회에 제출하였다. UN 총회는 2006년 12월 20일 협약을 채택하여 2007년 2월 6일 서명을 위하여 개방하였고, 2010년 12월 23일 협약이 발효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 협약에서는 45개 조문을 3개의 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제1부에는 제1조에서 25조에 걸쳐 총론적인 내용과 강제실종금지과 관련된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제2부에서는 제26조부터 36조에 걸쳐 협약의 이행감시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제37조부터 45조까지 이 협약이 강제 실종자 보호에 관하여 보다 효과적인 다른 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과, 비준, 발효, 개정 관련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한 ICJ의 강제관할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행사달력

2014년 10월 UN 주요회의 일정

일자	회의명	비고
10/7 ~ 10	장애인권리위원회 회기 전 실무그룹 제2차 회기	
7 ~ 31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12차 회기	
15 ~ 17	법집행 여성차별 실무그룹 제11차 회기	
20 ~ 11/7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57차 회기	
27 ~ 11/7	인권이사회 UPR 실무그룹 제12차 회기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코멘트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협력팀

담당자 황소영 2125-9884

sygraceh86@nhrc.go.kr